

극작가 버나드 쇼의 멋진 대응

‘무기와 인간’이라는 극본으로 처음 무대에 올려 첫 회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극작가 버나드 쇼가 흥분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가 관중의 환호에 답례 인사를 하였을 때의 일이다. 관중들 모두가 또 한 번 열렬한 박수로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박수가 끝나갈 무렵에 한 젊은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버나드 쇼, 당신의 극본은 누가 봐도 형편없는 작품이요. 그 공연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하며 빈정거렸다.

그러자 극장 안에는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 버나드 쇼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버나드 쇼는 웃으면서 아주 공손하게 대답을 했다. “손님이 주신 저의 작품 평가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말로 저의 작품은 형편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고는 관중 전체를 한 번 둘러보고 다시 그 손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손님,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신과 나, 겨우 두 사람만의 힘으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와 찬사를 막을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버나드 쇼가 재치 있는 유머로 대응하자 조용하던 장내는 갑자기 폭소와 함께 또다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공연히 버나드 쇼를 깎아 내리고 골탕 먹이려던 그 젊은이는 폭소와 박수 소리가 한 참 울려 퍼지는 속에서 어느 틈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